

‘일상생활의 문화사, 더 작은 역사의 발굴과 자원화’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의 배경

본 발제 자료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연구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원은 개원 초기 ‘충남의 역사문화 연구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자가 다양화되면서 최근 연구성과의 대중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수요자’란 일반 도민을 비롯해, 관련분야 종사자, 정책입안자 등 광범위하다.

연구원이 순수 역사학을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의 대중화, 콘텐츠 활용, 정책연구 등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1990년대 이후 학계의 흐름, 연구사업의 변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때에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역학의 부흥

- 중앙중심의 역사연구, 큰 주제(정치사 경제사 전쟁사 등)
 - 1990년대 이후 지방역사 연구 확대 되었으나 ‘향토사’ ‘지방사’ 등으로 평가절하 경향
 - 1990년대 후반 지역학 연구의 붐이 일어남.
(각 지자체에서 해당 행정구역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학술활동에 대해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특화시키려는 목적...)
 - 초기 지역학은 서울학(1993), 인천학(2002) 등의 대도시에서 시작했고, 충청학, 부산학, 전남학 등 道단위의 ‘지역학’이었으나, 최근에는 시군 단위의 지역학 연구가 활발함. (공주학, 홍성학, 예산학, 아산학, 논산학, 서천학 등)
 - 시군 지역학 연구를 주도하는 주체는 대학 또는 문화원임.(공주대학교-공주학, 청운대학교-홍성학, 순천향대학교-아산학, 문화원-예산, 논산, 서천)
 - 시군의 지역학은 대체로 역사 문화 연구를 주제로 하는 경향 (지역문화 특별강좌 개설)
 - 각 시군에 지역학 연구 단체 설립(독립단체 또는 대학 부설 등). 지역학강사 양성 프로그램 인기
- ⇒ 지역학은 분야가 넓어지고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지역학(地域學)의 사전적 정의?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한국지역학회의 ‘지역학’ 개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적 교류를 위한 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한국지역학회 1983년 창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분야가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학제간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학이 성립.

도시 및 지역계획학, 행정학, 경제학, 지리학, 도시공학, 사회학 등 연관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연구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학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분석에 대한 각종 연구 방법론 개발, 지역개발 및 지역정책 평가, 도시개발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부산대학교 구모룡 교수의 부산학에 대한 이야기

“부산의 역사적 경험들을 다각도로 해석하면서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부산을 채우고 있는 구성물들이 어떠한 역사적 경과의 산물인가? 부산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왔는가?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 어떠한 의미들이 내재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부산성’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되지요.”

2.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1990년대 말 한류열풍, 한국 고유의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 증가 → 투자
 - 국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옛 사료의 국역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한 전문 정보의 접근 용이. ex)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 대학의 지역문화 연구 기능 확대 (교육부의 각종 지원 사업)
 - 대학의 지역사회 문화 선도 기능 강화 (박물관대학, 평생교육, 각종 문화 강좌)
 - 자발적 시민조직과 단체의 활동
 - 언론을 통해 전통문화가 흥미로운 요소로 인식됨.(유명강사 등장, 예능프로그램 내에 인문학 콘텐츠)
 - 관심의 폭이 다양한 주제로 더욱 넓어짐.
 - 학계에서도 역사 연구가 역사민속, 역사지리, 역사건축, 인문학+디지털, 콘텐츠 활용 등 여러 분야와 접목
- ⇒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문화산업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관간 협업 및 대학 시군 문화원 시민단체 등과의 교류가 필요함.

3. 충남의 문화권 개발 사업 추이

-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1999~2010)’을 통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총 사업비 약 2조원)
- 충남 서부지역의 지역개발을 목표로 했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2004~2014)’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단위사업별 편차가 심하고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개발이 부족함에 따라 개발계획 내용을 재정비, 변경 요구됨.
- 최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국내 여러 지자체의 문화권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기반시설 과잉투자, 관광객 외면으로 인한 적자 누적 등)로 인해 국비확

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 문화권개발사업은 권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비는 축소되는 경향

⇒ 이와같이 대규모 문화권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추출하고 특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졌음.

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업의 변화상

-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구제발굴 부흥기. 관련기관 난립, 경쟁체제, 구제발굴 건수 및 수익성 저하 → 학술 발굴(전문성 요구)
- 지정문화재 중심 → 비지정문화재, 민속자료, 멸실 위험의 문화재에 관심 증가
- 관찬 기록물 중심 → 민간 기록, 구술
- 사회 구조, 사상 연구 → 생활문화 (의, 식, 주, 사투리 등), 인물
- 광역문화권(☞내포) →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문화권(☞삼교천)
- 유형문화자원 → 무형문화자원
- 전통시대 → 근현대
- 시군의 역사문화 연구 → 마을 단위, 골목길, 문중 등
- 편찬 사업 → DB구축
-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 일반인, 청소년 대상

⇒ 연구원 개원(2004) 이후 14년간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변화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콘텐츠에 주목하는 경향

5. 향후 과제 - 역사문화 콘텐츠

- 개인의 주변, 개인의 삶과 경험에 관련된 콘텐츠 확보
 - 생활 도구, 개인 생애사, 보통사람들의 삶, 의식주, 종교생활, 마을사
 - 현재의 삶 속에 남은 전통 문화에 대한 기록화(김장, 마을신앙, 사투리, 민요 등)
- 백제, 내포, 유교문화권 외 북동부 지역 문화적 특징 연구.
- 광역문화권을 구성하는 내부의 작은 문화권 주목.
 - 특수성 찾기, 매우 특화된 콘텐츠 발굴
- 근대시기의 역사 문화 관련 주제 연구
 - 2019년은 19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앞으로 2045년까지 근대시기 주요 역사적 사건의 100주년 기념이 계속 될것.
- DB의 구축, 공개와 서비스 시급
 - 역사문화연구원 성과물 아카이브 구축사업 진행중.
 - 1990년대까지의 충청남도 발간 자료
 - 향토사연구회, 문화원 등의 발간자료
- 좋은 콘텐츠가 문화산업으로 연계되기 위하여 전문 기관과 협업 필요
 - 충남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시군 문화원 등